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발전적 원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rinciples of the School Library Opening Policy

김종성(Jong-Sung Kim)**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저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중, 학교도서관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관의 기능 확립 저해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과 배경에는 지역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성격과 정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로 타당성과 목적성의 원리, 지역공동체 연대 원리,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 원리 등을 제안하였고 성공적인 지역개방을 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inspection of the School Library Opening Policy. Some problems show the policy is not only ineffective but also disadvantag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The writer suggested three principles and critical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chool Library Opening Policy.

【Key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Opening Policy,
Cooperation of School and Public Libraries

1. 들어가며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교장 조항운)가 야간에도 학교도서관을 개방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략)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공부방 역할은 물론 주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게는 마을 문화센터로 활용되면서 백봉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조항운 교장은 “반딧불 야간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야간 공부방으로 보충학습과 함께 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해 주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게는 독서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모든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2009).

지난 23일 오후 금정구 구서동 구서초등학교 도서관 ‘솔빛관’ 2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2명이 책을 읽고 있었다. 다섯 살배기 딸과 함께 도서관을 자주 찾는다는 박진아 씨는 “일반 도서관은 집에서 멀고, 학교도서관이지만 일반인에게 책을 빌려줘 종종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1학년 정민아 양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독서지도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도 여러 권 있어 일주일에 2~3일 정도 들른다”고 밝혔다. 이 도서관은 마을 주민에게 1주일에 5권의 책을 대출해준다. 지난 2006년 4월 개관과 동시에 지역민에 개방한 솔빛관은 1만 6,000여 권의 장서에 지역주민 회원 563명에 달한다 (국제신문 2008).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비블리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논문접수일자 : 2010년 9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12월 10일

찾아보면 대개 이와 같은 내용이다. 학교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어 크게 기대가 된다거나,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학교도서관 지역 개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기사도 찾을 수 있다. 다음에 인용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지 않다든지, 도서관 운영에 내실이 없어 학교도서관의 개방이 실제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방과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가 무자격증 사서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또 지역을 안배하지 않은 시범학교 선정과 홍보 부족, 도서관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지역의 구리 C초교는 지난해 8월 개방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루 10~20명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교외에 위치한 여주 B초교도 7개월이 넘도록 하루 20명 안팎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경기일보 2010).

찾아오는 주민이라고는 하루 3~5명이 고작이라 했다. 주민들 얼굴이 날마다 조금씩 바뀌면 좋을 텐데 만날 같은 사람만 온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다. 전시만 있지 계획은 없었던 탓이다(경남도민일보 2010).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들만 보면 이 정책은 무척 성공적인 것 같지만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이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며, 성과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과 선결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탐색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의 개방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는 효과적인 지역 개방 전략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도서관 문화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도서관 지역 개방의 문제점과 한계

학교도서관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와 한계가 부각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 개방의 효과를 저해하며 때로는 학교도서관 본연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역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지역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지역 주민 이용률 저조

학교도서관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개방 도서관의 이용 현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없지만 지역 단위의 현황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인천지역의 학교도서관 지역 개방 실태를 조사한 논문을 보면 지역사회에 개방한 학교도서관 중 60%의 도서관은 일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황은혜 2008, 36). 일주일 평균 이용자가 10명 미만이라는 것은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명 미만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도서관의 60%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같은 논문에는 일주일 평균 지역주민 이용자가 10명~30명인 학교는 전체의 23.3%이며 30명~50명인 학교는 6.7%, 50명 이상인 학교는 10%로 나타났다. 일주일 이용자가 50명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용자는 10명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집계한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의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대출 현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울산광역시교육청 2010).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7개월간의 대출 책 수를 조사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개월간 학교당 지역주민 대출자 수는 평균 28.32명이며 대출책 수는 49.97권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는 대출자 수 136.89명, 대출책 수 328.63권으로 조금 많

<표 1> 학교도서관 지역 대출 현황(울산, 2009.08.01~2010.02.28)

대상	구분 학교	분석 대상 학교수	대출자 수(명)				대출책 수(권)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평균
지역 주민	초	114	0	0	3,330	41.65	0	0	6,477	78.47
	중	61	0	0	371	8.26	0	0	687	16.66
	고	44	0	0	949	21.59	0	0	980	22.30
	전체	219	0	0	3,330	28.32	0	0	6,477	49.97
학부모	초	114	0	150.5	1,925	252.68	0	312.5	3,586	608.53
	중	61	0	0	219	16.54	0	0	483	38.05
	고	44	0	0	60	3.77	0	0	90	6.32
	전체	219	0	17	1,925	136.89	0	25	3,586	328.63

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합해도 7개월간의 대출 통계이기 때문에 1일 이용으로 환산하면 극히 적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수치와 별개로 대출자 수와 대출책 수에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최소값과 중위값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사정이나 교육청의 장학활동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지역 개방의 성과를 확보하는 1차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 개방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2 담당 인력의 고충 증가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에 따른 일차적인 문제의 한 가지는 담당 인력의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잡무가 추가되기 십상이다. 정규직 사서교사이건 비정규직 사서이건 지역 개방에 따른 고충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성격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사서교사의 경우는 방학 중 개방에 대한 부담과 고충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과교사처럼 방학을 맞아 집에서 재충전하거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학교도서관 개방으로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서교사들은 교육 경력이 짧고 교과교사들과 달리 혼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 인용문은 학교 경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방학

을 반납해야 하는 사서교사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방학 때 쉴 생각 말라고 교장샘이 그러시더군요. 매번 방학 때마다 이래야 할 겁니다.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략) 정말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방학이 없어야 하는 건가요? 도서관 개방 문제는 사서교사가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근무까지 해야 한다면... 학교장의 의지면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독서교실 12일이나 하는데 나머지를 근무로 채워야 하는 건 거의 강제 아닌가요?(경북사서교사모임 2005)

형편이 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도우미나 학생 도서반, 또는 대학생 희망근로 프로그램 지원 등의 방법으로 대신 업무를 보게 하고 연수에 참여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도서관을 맡아 준다고 해도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까지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는 지역 개방에 따른 고충이 더 복합적이며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사서교사에 비해 신분과 처우가 불리하고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지역 개방을 하게 되면 업무가 더욱더 가중되고 근무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직무에 따른 고통은 더욱더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민 개방한다고 야간개방하면, 결국은 근무자만 죽어납니다. 공공도서관처럼 근무자나 아르바이트가 많아서 부담 없이 로테이션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학교도서관이 갈수록 근무자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같군요.(사서e마을 2007b).

전 지역주민 개방,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ㅠ. ㅠ. 학교도서관에서 학생, 교사들만 해도 너무 힘든데... 지역주민이라니요!! 한번씩 학부모님 시험감독와서 학부모님이 학생 이름으로 대출하고, 놀토에도 개방하면 참 좋을텐데... 하시면서 건의하신다고 하고, 제가 지금 학생과 교사들만으로 힘들다면서 죽는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 잠잠하시던데... 전 정말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 생각도 안하고 학교 평가나 실적 때문에 지역 개방까지 하는 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사서e마을 2007b).

이용이 많은 학교의 경우 담당자의 고충은 더욱 더 심하다. 특히 지역 개방으로 학부모나 주민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육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도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의 성격과 특성상 성인 이용자들까지 상대하게 되면 애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노고는 상상외로 커지는 것이다.

초등인데요, 저흰 방학 때도 많은 이용률을 기록하는 학교입니다. 방학하니까 학기 중의 3~4배정도 되는 엄마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더불어 무개념 엄마들 때때 저의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는데요. ㅠ(사서e마을 2007a).

중·고 통합 혼자서 합니다. 3년째 하고 있어요. 둘 다 활성화... 그냥 활성화 아난 하루 종일 아이들로 북적거리는 도서관이에요, 이런 와중에 야간개방까지... 뒷정리는 누가 합니까... (중략)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도 160평 넘어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이에요... 나혼자 맡겨놓더니 야간개방까지... 아이고ㅠ.ㅠ (사서e마을 2010).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하여 도서관 담당자에게 지나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개방의 성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담당자가 지역 개방으로 인하여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직무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학교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2.3 학교도서관 인력 체제의 왜곡

지역 개방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개방을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해지게 된다. 담당 교사 체제로서는 지역 개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만큼 전문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를 임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육 지책으로 비정규직 형태의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서교사의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사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년 동안 사서교사는 164명에서 699명으로 증가하여 530명이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사서는 880명에서 4,281명으로 증가하여 3,401명이나 늘어났다. 사서교사는 연 평균 76명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사서는 486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표 2>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현황(2002~2009)

연도	구분	학교수	도서관수	전담 인력(명)			
				사서교사	사서직원	비정규직 사서	계
2002		10,172	8,181	164	20	880	1,064
2003		10,503	8,657	232	39	1,135	1,406
2004		10,649	9,248	284	46	1,685	2,015
2005		10,826	9,696	313	57	1,881	2,251
2006		11,016	10,015	424	60	2,716	3,200
2007		11,076	10,422	537	62	2,552	3,151
2008		11,222	10,678	625	55	2,858	3,538
2009		11,293	11,082	699	34	4,281	5,014

* 자료: 2002~2007년 데이터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시안)』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계획 문서 참고; 2008~2009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 참고.

이처럼 사서교사에 비해 비정규직 사서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도서관 운영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사서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게 되면 학교도서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학교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교육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은 안정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게 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인력 증가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사서의 규모가 증가하고, 정규 사서교사의 수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학교도서관 인력 체제를 왜곡하는 현실이 당연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학교도서관 인력 체제의 기본 원리는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서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원칙이 전복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비정규직 사서의 수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지역 개방 문제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개방의 흐름이 비정규직 사서 배치를 일면 정당화 하고 자극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비정규직 사서 담당 체제가 확대되는 것은 학교도서관 인력의 비전문화, 비정규화를 고착화할 수 있어 우리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무자격 사서가 채용되는 관행이 확대되어 학교도서관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영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2.4 학교도서관 기능 확립 저해

지역 개방은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확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차적인 기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지원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개방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이

분산되면서 학교도서관은 본연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학교도서관 선언에서는 '그 시설과(이나) 자원을 공공도서관과 같은 다른 유형의 도서관과 공유하는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고유한 목적이 인정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IFLA/UNESCO 2000).

우리 학교도서관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기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일천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학교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고 서비스 관행을 확대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런 단계에서 지역 개방 활동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그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학교도서관을 정부 정책 과제로 부각시키고 현장을 크게 개선하였지만 그 본연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입지를 강화하지 못하면 결국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 개방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도서관 지역 개방 문제의 배경과 이면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관찰된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의도한 성과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개방의 문제와 한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 개방 정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지역 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에 필요한 기본 자원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 자원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자원을 인력, 자료, 시설이라고 하면 이 자원들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학교도서관 개방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려면 그 전에 학교도서관의 인력과 자료와 시설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서비스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력은 세 가지 기본 요소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온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정규 사서교사의 경우 전체 학교도서관의 6.3%에만 배치되어 있다. 거기에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를 포함하여도 전체 학교도서관의 45.2%에 지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학교도서관에 전담 인력이 없으며, 약 94%의 도서관에 정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따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시설이 아니고 사서다. 2009년 현재 경남 지역 학교에는 사서가 160명 남짓 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에 따르면 정식 사서는 40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경남의 학교도서관 898곳 가운데 80%가 사서가 없다(경남도민일보 2010).

이 사업이 제대로 결실을 보려면 사서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산과 경남 초·중·고교 가운데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각각 6.3%와 3.8%에 그쳐 비정규직 사서나 학부도 도우미에 의존하고 있다(국제신문 2009).

위의 기사에서도 지역 개방에 따른 가장 큰 문제를 전담 인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정책 방향이 옳고 지역의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력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효과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없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교사가 없이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료는 어떠한가?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학교도서관 교유의 장서만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도서관 장서의 범위가 성인들이 보는 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장서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어른들도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아도 되고 한편으로는 권장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학교도서관 개방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개방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학교급에 따라 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장서 규모를 보면 2002년에 5.5권이던 것이 활성화 사업 1단계 만료 시점인 2007년에 이미 10.8권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지만 지역 개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장서를 별도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서량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장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역 개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 가지 기본 요소 중에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거둔 가장 가시적인 성과도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조건을 개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의 경우 지역 개방을 하여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도서관 규모가 협소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둠학습 공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열람 공간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간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이 열람보다 대출에 편중되면 이런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간 규모 문제와 함께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설치 원리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는 도서관의 위치를 교사의 중심부에 위치시켜두고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원리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조치이다. 하지만 지역 개방을 염두에 둔다면 이 위치는 썩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과 시간 중에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교사에 출입하게 되면 수업에 방해될 수도 있으며, 학교 입장에서는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지역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교문에서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헤이콕(Haycock)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안내관을 붙인 독립된 외부 출입구,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성인용 회의실, 학생과 일반 주민을 위한 분리된 화장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Haycock 1990). 이와 같은 충실한 조건을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건이 불비하다면 기본적인 사항들만이라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슨(Olson)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의 시설 조건으로 연중 가동되는 냉난방 시설, 건물 밖에 있지 않고 주민들의 교실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도서관 안의 화장실, 다양한 고객 집단과 교통 이용패턴에 따른 고려사항 등 모두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관 시간, 야간 이용을 위한 충분한 외부 조명, 가능할 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과 식당, 주차 공간, 24시간 무인 반납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Olson 1996).

리우(Liu)는 중국의 북서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태와 개선 과제를 보고하였다(Liu 2008, 12-13). 이 연구에서 그는 중국 북서부 지역의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장서 문제(부족한 장서와 장서구입 예산), 도서관 인력 문제(전문 인력 배치 미비, 인력 교육 부족), 문맹률(낮은 교육 수준과 높은 문맹률) 등으로 꼽았다. 문맹률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동일하게 기본 조건이 불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자원을 확충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도서관 현실에서 보면 이런 선결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개방을 유도하고 시행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한 지역 개방은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운영 체계를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 상황을 보면 개방 과정에서 개방의 원리, 의의, 효과, 방법 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여러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 개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오류이다. 교육정책 당국이나 학교 경영자들의 인식을 들여다보면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을 단지 학교의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 개방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그냥 문만 열어 두면 되는 것인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다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도서관의 기능이 완전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도서관은 분명히 다른 사명과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이용 대상, 자료, 서비스 프로그램, 공간 등의 운영에서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원리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질적인 기능을 통합하는 원리와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단지 도서관 문을 개방하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고 섬세하게 계획하여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고 단순하게 접근한 것으로 관찰된다.

두 번째로는 개방의 효과와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였다는 것이다. 도서관을 개방하기만 하면 이용자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방에 따른 준비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보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하고 지역 사회에 적절한 홍보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는 개방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채 개방을 하였다. 그리고 개방을 한 이후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공지 수준의 홍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깊지 않고 도서관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지 않으면 지역주민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개방에 따른 운영의 책임은 도서관 담당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이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개관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야간 개관, 방학 중 개관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개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 개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면 추가적인 업무 증가에 따라 외부에서 인력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지원하여 분담하는 방법으로 대처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개방에 따른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이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여 분담하는 형태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도서관 업무는 오직 도서관 담당자(사서교사, 사서)의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도서관 개방에 따른 고충은 오로지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면 도서관 운영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인식의 오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3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우리 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학교도서관을 학부모나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이나 사업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2002년에 발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2)에도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학교도서관 관련 법규에도 지역 개방이 학교도서관의 업무로 규정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은 제도와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강조되는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은 학교도서관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이며 동시에 학교도서관 운영 방향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제 상황에서는 오해되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책 문건이나 법규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을 모든 학교에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학교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2)에서는 ‘지역실정, 학교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 개방’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에도 다음과 같이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학교도서관진흥법』 2008).

-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도서관법』 제38조에서 제시된 학교도서관의 업무는 ①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②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③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④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⑤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⑥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명시하는 지역 개방의 원리는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교육

활동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도서관은 무조건 지역 개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업무 수행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역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과 제도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다분히 맹목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획일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교육당국이 운영비와 장서구입비 등의 지원금을 내세워 지역 개방을 유도하기도 한다. 학교도서관의 기본 여건상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외형적인 효과와 정책 성과를 위해 지역 개방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도 분명 정책과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관행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부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학교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체결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가 직접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기업 등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도 하고 교육 당국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학교나 교육 당국의 여러 규정이나 관행이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산 집행 규정, 인사 규정 등이 가로막기도 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상 불가능한 일도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공공도서관이 장서구입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이런 규정과 관행이 일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같은 교육 당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간에도 자원의 이동이 여의치 않는 구조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조직 문화가 관료화 되어 있기도 하고, 자기 조직 자체의 업무가 과하기도 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 학교는 학교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 나름대로 과중한 일상의 업무에 묻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들이 기왕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일만 가지고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 관계를 맺

고 새롭게 일을 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지가 좋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지하는 형태로 굳혀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

학교도서관 개방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연유하는 배경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리와 전략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어떤 조건을 확립해야 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원리와 조건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참고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4.1 타당성과 목적성의 원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려사항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방을 결정하기 이전에 개방의 타당성과 목적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교육 당국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개방이나 학교 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는 개방 등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만 가져올 수도 있다. 맹목적인 개방을 피하고 의미 있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의 개방 요구가 있는가?
-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량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가?
- 지역에 공공도서관 설립 및 확대 계획이 있는가?
- 개방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 내부 구성원들에게 개방의 의지가 있는가?
- 개방에 따른 학교의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 개방에 따른 학교의 희생과 손실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 개방에 따른 지역사회의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 개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요청하고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 개방을 위해 지역의 어떤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가?
-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도서관 가용 자원의 수준은 어떠한가, 개방에 무리가 없는가?
- 개방에 따른 추가 자원(인력, 예산, 자료 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 개방을 일정 기간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고려 사항을 통해 개방의 필요성, 가능성, 목적, 전략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에서는 내부의 통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개방을 통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도서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개방에 내몰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은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목적을 명확히 한 이후에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개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

4.2 지역공동체 연계 원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도서관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교와 사회의 관계망이 더 두터워지는 것을 말하며, 더욱 더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의 지역 개방이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와 조건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사회의 관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방

의 의미에 적합하지도 않으며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의 개방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개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표방하고 도서관을 개방하여 성공한 것으로 관찰된다. 충남 아산의 송남초등학교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소 길지만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학교도서관 개방의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옮겨 본다.

이 학교도서관이 울타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연 데는 사연이 있었다. 아산시 송악면엔 두 곳의 초등학교, 한 곳의 중학교가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용할 문화공간이 전혀 없었다. 서점이나 영화관은 물론이고 그 흔한 커피숍, 피시방도 보기 힘든 상황에서 2006년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근처 거산초로 전근 간 장종천 교사 등이 <한겨레>에 소개된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삼성, 책 읽는 문화재단, 한겨레 공동사업) 사업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었다. 2007년 11월, 도서관이 '귀신놀이 하기 딱 좋은 공간'에서 '매일 오고 싶은, 집보다 좋은 공간'으로 짝 변신한 사연이다.

운영 3년, 도서관이 걸만 화려한 장소로 머물지 않게 된 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연대'였다. 2003년부터 정부에서 벌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부터 각종 단체 등에서 벌인 도서관 건립 사업 뒤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송남초 학교도서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학부모들이 공모 과정에서부터 공청회를 열어 마을에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관 첫해는 도서관을 열고 꾸러가기 바빴다.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후원인까지 모여 도서관 운영위, 후원회를 조직했다. 내실을 꾀하려면 전문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생겼다. 2년 전 부임한 황 사서교사는 "전국적으로 볼 때 사서교사 발령 자체가 엄청 어렵고 이 직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연대해서 사서교사에 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설명했다(한겨레 2010).

송남초등학교 솔향글누리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은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한판 축제처럼 보였다(MBC 2007).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하

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병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역의 학교도서관이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연대 위에서 개방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대감과 연대 가능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개념이 약화된 도시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단순한 이용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방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 위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든지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개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의 원리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 또는 다른 외부 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학교 안의 한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기관과 단체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물론 단순히 학교에서 외부 기관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게 되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운영 과정까지 합리적이며 통합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개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체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조건을 만들어가야 하며 서비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개방을 위한 준비 단계와 개방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과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학교도서관 기본 체제 및 운영 관행 확립
 - 인력, 장서, 시설 등 학교도서관 기본 운영 조건을 충실하게 확보한다.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교육 활동과 서비스 체제를 확립한다.
- 개방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확인
 -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포 현황과 서비스 수준을 점

- 검토한다.
-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 만족도를 확인한다.
-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방 요구를 직접,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여부를 확인한다.
- 학교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 일차적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개방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견을 묻는다.
 - 개방에 따른 불편과 희생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주지한다.
 - 개방의 필요성과 의미를 교직원과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 개방에 따른 교직원들의 업무 증가 내역과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개방 이후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 교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원칙에 대해 동의를 얻는다.
 -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점검한다.
- 추가 소요 자원 확충 방안 확정
 - 학교 내외부의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하여 개방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자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을 확보한다.
 - 지역주민을 위한 장서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마련한다.
 - 공간과 추가 시설 문제에 대해 학교 내외부의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기업,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탐색한다.
- 협력 운영체제 구축
 -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 협력 기관들과 운영 체제를 협의한다.
 - 협력 주체들을 통해 예산 지원, 인력 지원, 운영 책임, 성과 평가, 지속적 협력 관계 등의 소관과 책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
 - 인력, 자료, 시설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분담, 관리와 운영 방법과 책임 등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협약서를 작성한다.
 - 협력 기관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조직한다.
- 지역사회 홍보 및 마케팅
 -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이

용을 위해 안내하고 홍보한다.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지역 신문, 주민센터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 시간과 방법을 알린다.
- 지역 개방과 함께 전략적으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이 하는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방 도서관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가령 평일, 주말, 방과 후, 방학 등에 따라 개관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전략적 운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방해할 수 있으며,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후원 그룹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자료 선정위원회 등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후원 그룹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의 후원그룹으로 활성화되어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Library)'과 같은 성격을 가진 후원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후원 그룹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서관에 대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도서관 후원 그룹은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교육 문제에도 지원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게 되면 지역 주민을 위해 추가적인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학교의 성격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 많은 자료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근의 공공도서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정량의 책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여 장서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단독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거나,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지원 받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통해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역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학교도서관 지역 개방의 성공 요인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조건들을 검토하고 충족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조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정부 당국과 교육 당국의 정책이나 방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며 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정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각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원칙과 전략으로 개방을 하여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전제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번디(Bundy)와 아메이(Amey)는 학교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성공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Bundy and Amey 2006, 503-504).

- 모든 협력 주체들이 승인한 공식적인 협약서를 가진다.
- 협약서는 모든 정책적 이슈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의 수준은 하나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때 (개방 이전)와 동등하거나 더 나아가야 한다.
- 인력 운영, (직원의) 전문성 개발, 자문과 재정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
- 관리이사회나 위원회는 역할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운영, 목적 및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봉사해야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져야 한다.
- 도서관의 자원은 제시된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적합해야 한다.
- 위치를 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만일 위치가 미리 결정되었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도서관 근처나 도서관에 좋은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 개관 시간은 모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 물리적 시설은 지역사회에 적합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
- 인력 운영의 수준은 적합해야 하고 인력 구성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 가능하면 인력 채용과 관리는 통합적이어야 한다.
- 지원 체제를 통해 너무 빈번하게 인력 규모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장은 전문직 사서여야 하고, 직원과 예산의 직접 통할을 포함한 운영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 도서관장은 각 협력기관의 상위 의사결정 주체나 정책 주체들에게 도서관을 대표해야 한다.
- 관장과 예산지원 주체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도서관에 대한 일상적인 내부 평가와 정기적인 외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튜스(Matthews)는 뉴질랜드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을 조사하여 주요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Matthews 2008, 22).

- 공식적인 운영 협약(서)
- 포괄적인 책임을 가지는 도서관 관리자
- 지역사회의 지원
- 확장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적합한 규모
-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한 위치
- 양호한 주차공간과 접근성
-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한 개관 시간
- 적합한 인력 수준(규모)
- 도서관의 통합적 기능을 이해하는 직원
- 자원봉사 인력

- 최신의 정보 테크놀러지와 기술적 지원
- 통합적인 장서
- 이용자 그룹에 따라 서비스, 자료, 접근에 대해 차별하지 않기
- 확장된 네트워크에 소속되기
- 학교의 후원과 예산 지원
- 지방의회의 후원과 예산 지원
-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 선의, 융통성, 인내, 커뮤니케이션

루우와 헨드릭츠(Roux and Hendrikz)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정에 맞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통합 모델을 탐구하여 제안하였다(Roux and Hendrikz 2006, 625-626).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 통합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요인으로 정부의 예산 배정과 지원,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 인력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 테크놀러지의 이용과 접근 등을 꼽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의 개방에 필요한 성공 요인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복합 기능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외부로부터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조건을 확립해 두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을 위한 장서를 추가로 확보하되 그 규모는 충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 내외부의 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편리해야 한다.

여섯째, 개방에 협력하는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은 구체적 실제적인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과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와 외부 기관은 협력적인 체제를 통해 공동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협력, 통합, 공동의 유익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6. 나오며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논리가 외부로부터 형성되어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문화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건과 역량을 갖추지도 못한 학교도서관이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은 학교 내부와 학교도서관 자체의 역량을 충분히 확립한 이후에 주체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였다. 다만 학교도서관 자체의 사정이 열악한 데 공공도서관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도 없이, 거부하기 어려운 외부의 힘에 의해 맹목적으로 개방하는 경향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그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았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 경영자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무턱대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에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을 위한 조건과 전략을 확립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성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통합적인 체계로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일보』. 2010. 방과후 학교도서관에 '무자격 사서.' 4월 28일.
 『경남도민일보』. 2010. 도내 학교마을 도서관, 사서 없고 이용객도 드문 텅 빈 곳. 1월 4일.
 경북사서교사모임[온라인 커뮤니티]. 2005. '방학개방에 대한 경과 보고' [2010.10.3. 인용].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시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2002.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반안-』. 교육인적자원부.
 『국제신문』. 2009. 부산發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교과부 전국사업 채택. 9월 28일.
 『국제신문』. 2008.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1) 구서초·사직초·사직여중. 5월 28일.
 김지봉. 2007.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확충을 위한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육시설정책전공.
 사서e마을[온라인 커뮤니티]. 2007a. 『아~ 무개념 엄마들~T.T』. [2010.10.3. 인용].
 사서e마을[온라인 커뮤니티]. 2007b. 『지역개방학교입니다 참고하세요(+한탄글)』. [2010.10.3.인용].
 사서e마을[온라인 커뮤니티]. 2010. 『사서는 퇴근하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야간 개방하는 학교 있나요? T.T』 [2010.10.3.인용].
 신경수. 2009. 『대전광역시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울산광역시교육청. 2010. 『학교도서관 현황 자료』. (미간행 문서).
 『충북일보』. 2009. 괴산 백봉초, '반딧불 야간도서관' 개방 호응. 5월 24일. 학교도서관진흥법. 2008. [법률 제 8852호].
 『한겨레』. 2010. 함께하는 교육 -커버스토리/송악면 사람들, 학교도서관서 소통하다. 3월 22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2009.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모순인가? 협력인가?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포럼자료집』.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황은혜. 2008.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MBC. 2007. 『MBC 프라임: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 녹화). MBC.
 Bundy, Alan & Amey, Larry. 2006. Libraries Like No Others: Evaluating the Performance and Progress of Joint Use Libraries. *Library Trends*, 54(4):

- 501-518.
- Haycock, Ken. 1990. The School-Housed Public Library. *Emergency Librarian*, 17(4): 33-34.
- IFLA, UNESCO. 1999.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The School Library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All*. IFLA/UNESCO.
<<http://archive.ifla.org/VII/s11/pubs/manifest.htm>>.
- Liu, Geoffrey Z. 2008. School Libraries Serving Rural Communities in China: The Evergreen Model. *School Libraries Worldwide*, 14(1): 1-20.
- Matthews, Kaye. 2008.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School and Community Joint Use Libraries in New Zealand. *Aplis*, 21(1): 13-24.
- Olson, Renee. 1996. 2 In 1: Designing a Combined Library That Works for Everybody. *School Library Journal*, 42(2): 24-28.
- Roux, Sophia Le. & Hendrikz, Francois. 2006. Joint Use Libraries: Implementing a Pilot Community/School Library Project in a Remote Rural Area in South Africa. *Library Trends*, 54(4): 618-637.